

中國 延邊 朝鮮族과 漢族의 集合住宅 平面構成 比較 研究 - 延吉市를 中心으로 -

The Comparison of Space Origination between Korean-Chinese and Chinese Multi-family Housing in China

김종영*
Kim, Jong Young

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find the difference of space origination between Korean-Chinese and Chinese multi-family housing unit plan and to find the main reason to make this difference. To do this research, twenty three different kinds of floor plans were surveyed and examin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hinese-Korean floor plan and Chinese floor plan in Ondol heating system are totally different, although in radiator and floor panel heating system are similar. The inner space origination between two races are different. That is to say, Chinese-Korean likes open space origination and Chinese likes closed space origination. 2. The main reasons to make differences seem to be living style, heating system, constructional method and the trade with South Korea. In the future time, the usage of floor panel heating system will be increased and various kinds of floor plan should be introduced.

Keywords : Korean-Chinese unit plan, Chinese unit plan, process of change, factor of change.

주요어 : 조선족 평면, 한족 평면, 변천과정, 변화요인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중국 조선족은 주로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집거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로 약칭)이다. 이 지역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조선족과 한족(漢族)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 말까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 1세대와 그 후손들이다. 이들은 한족 및 다른 소수민족들과 공존하면서도 상당부분 그들과는 다른 생활방식과 주거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실제로 조선족의 주거와 한족의 주거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들어 민가의 경우, 조선족은 온돌중심, 좌식생활 방식의 공간구성인데 반해 한족은 kang중심의

입식생활에 적합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합주택에서는 두 민족간의 평면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취지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두 민족간 집합주택 평면구성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시간축을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하는 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두 민족간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 조선족 집합주택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연변의 6개도시 중 연길시, 용정시, 화룡시, 도문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집합주택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평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면수집: 연변대 설계원, 시정부 설계원, 실측

*정희원, 계명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200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등을 통해 58개 평면 수집.

- 분석대상 평면선정: 58개 평면 중 조선족/한족, 건립시기를 고려하여 23개 평면선정.

- 평면유형 파악: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평면유형 파악.

- 평면유형별로 민족간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 그 요인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실시한 조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조선족형, 한족형 집합주택이라 함은 각각 조선족과 한족을 위해 공급된 것을 말하며, 공통은 두 민족 공통으로 공급된 형을 가리킨다. 1차적으로 수집된 58개 평면형을 분석한 결과 4개 도시간에는 별 차이점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조사에서의 평면분석은 연길시의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23개 평면은 1960년대 5, 1970년대 3, 1980년대 6, 1990년대 9개이었으며, 민족별로는 조선족형 6, 한족형 6, 공통 11개였다. 조사는 도면 및 실측조사와 아울러, 공간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생활조사를 병행하였다.

생활조사 대상은 총 53세대였다.

표 1. 조사의 개요

	내 용	대 상	기 간
기초 조사	평면수집, 분류	조선족형: 15, 한족형: 8 공통(라디에터): 10 공통(온수바닥패널): 14 - 총 58개 평면	2000. 7.10-7.24
	평면형 선택	조선족형: 6, 한족형: 6 공통(라디에터): 5 공통(온수바닥패널): 6 - 총 23개 평면	
	평면유형파악	4개의 평면유형파악 (세부유형: 6개)	
방문/ 인터뷰 조사	이용실태 분석 임주자의 요구분석	· 평면유형당 1-3개 평면총 12개평면. · 12개평면 각각 4-5세대 - 총 53세대 (조선족 29, 한족 24)	2000. 7.10-7.24 2001. 2.3-2.12

II. 연변의 집합주택 및 조선족과 한족의 주생활 개요

1. 연변의 집합주택 개요

연변지역 6개 도시 중 조선족이 50%이상인 도시는 연길시(延吉市), 용정시(龍井市), 도문시(圖們市), 화룡시(和龍市)인데 본조사 대상인 연길시는 자치주

정부가 있는 중심도시이다. 연길시의 인구는 1998년 말 현재 376,000여 명 이었는데 그 중 조선족이 59.2%, 한족이 38.7%로서 이 두 민족이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 연길시에 집합주택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부터인데 1998년말 현재 도심부는 75%정도가 집합주택이었다. 그 이후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현재는 그 비율이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변의 각 도시에서는 성시(城市)¹⁾를 고밀도 집합주택지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집합주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집합주택 공급방식은 1980년대 말까지는 집체단위(직장)에서 조선족과 한족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괄 공급하였으며, 한 동에 동시에 배분할 때는 수직으로 조선족 평면형 라인과 한족 평면형 라인을 구분하여 공급하였다²⁾. 그러나 1990년대 부터는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평면형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2. 조선족과 한족의 주생활 개요

조선족과 한족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족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데 반해 한족들은 슬리퍼를 신거나 일부는 신을 신고 들어가기도 한다. 식생활의 경우, 조선족은 밥이 주식이고 부식으로 국, 된장, 김치 등을 즐겨 먹는데 반해, 한족의 경우는 빵과 죽이 주식이고 부식으로 기름에 볶거나 튀긴 채를 즐겨 먹는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조선족이 한족식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면, 한족들이 김치나 된장을 담가먹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 선호하는 음식이나 조리방법 등은 아직도 차이가 많다. 취침은 조선족, 한족 모두 침대를 선호하지만 온수바닥난방의 경우, 조선족의 상당수가 바닥에서 잠을 잔다. 그 외 접객이나 가족단란, 용변 등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가족수나 가족구성 역시 별 차이가 없었으며, 가전

1) 중국의 도시는 광역시 개념인데 그 중 성시는 도시의 중심부로서 실제적인 도시지역을 가리키며 엄격한 도시계획이 적용된다. 성시범위 밖의 지역은 교외지역으로서 주로 농촌에 해당된다.

2) 조선족과 한족의 평면구성이 다르고 특히 조선족형은 정지(부엌)부분의 바닥레벨이 한족형보다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직라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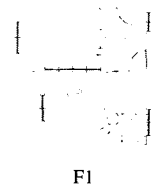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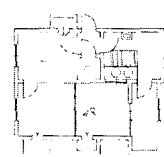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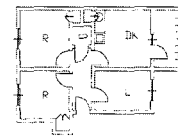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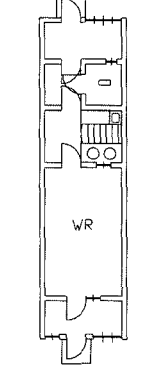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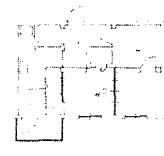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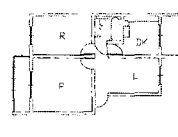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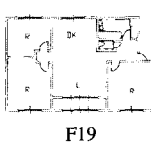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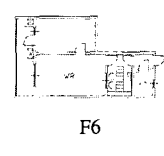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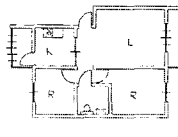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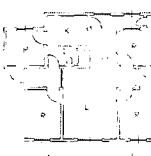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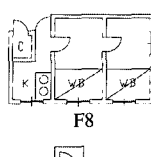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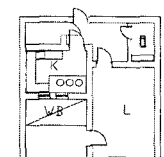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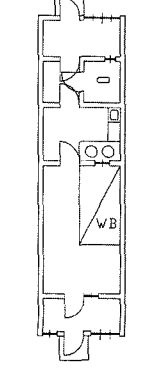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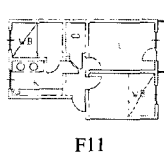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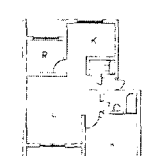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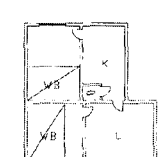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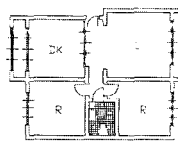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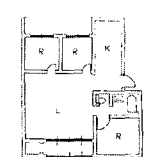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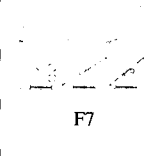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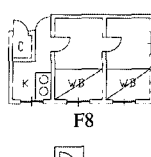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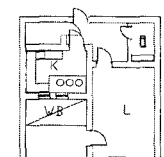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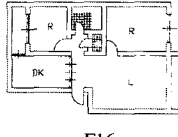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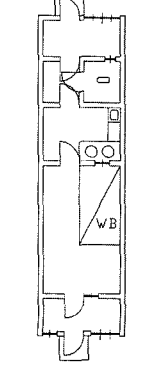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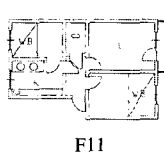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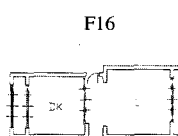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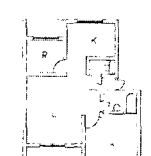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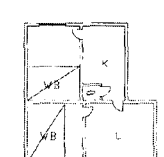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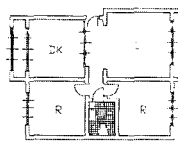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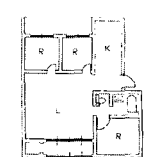
제품 보급률도 대동소이하였다.

로 서로 다른 주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 합주택 도입초기부터 서로 다른 평면형이 공급되었 는데 1차 수집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3개 평 면은 <표 2>와 같다. 또한 <표 3>은 이들 각 평면의 실의 종류와 갯수, 건립연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Ⅲ. 평면의 실태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족과 한족은 기본적인

표 2. 조사대상 평면

난방	구들식 (돌, 강)			라디에터	온수바닥난방
특성	조선족:정주칸 한족: 강	위생실 추가	위생실, 거실추가	조선족·한족공통	조선족·한족공통
조선족 평면형	 F1	 F2	 F4	 F13	 F18
		 F3	 F5	 F14	 F19
		 F6	 F15	 F20	
		 F8	 F9	 F21	
		 F10	 F11	 F22	
		 F12	 F17	 F23	
한족 평면형	 F7	 F8	 F9	 F15	 F21
		 F10	 F11	 F16	 F22
		 F12	 F17	 F23	

온돌방: WR, 방: R, 온돌부엌: WK, 주방: K, 식사실: D, 거실: L, 변소: WC, 화장실: T

표 3. 평면의 분류

특징 (조선족/ 한족)	평면형	면적 (m ²)	실 구성	건축년대
조선족	F1	47	2WR, WK	1960년대
	F2	42	2WR, WK, WC	
	F3	36	WR, WK, WC	1980년대
	F4	60	2WR, WK, L, WC	1960년대
	F5	62	2WR, WK, L, WC	1970년대
	F6	58	WR, WK, L, WC	1980년대
한족	F7	44	2WB, K	1960년대
	F8	46	2WB, L, K, WC	
	F9	60	2WB, L, K, WC	1970년대
	F10	36	WB, K, WC	
	F11	64	2WB, L, K, WC	1980년대
	F12	62	2WB, L, K, WC	
F13	68	2R, L, DK, WC		
공통	F14	62	2R, L, DK, T	1990년대
	F15	70	3R, DK, L, T	
	F16	72	2R K, LD, T	
	F17	82	2R, DK, L, T	
	F18	134	3R, L, DK, 2T	
	F19	86	3R, LDK, T	
	F20	148	4R, LDK, 2T	
	F21	140	4R, L, DK, 2T	
	F22	80	2R, L, DK, 2T	
	F23	120	3R, LD, K, T	

서 F1-F6은 조선족 평면이고, F7-F12는 한족 평면, F13-F23은 공통 평면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면적: 1970년대까지는 40-60 m²로 소형이던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70-148 m²로 커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큰 면적의 평면형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간에 면적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② 실의 종류 및 구성: <표 3>에서 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온돌방(WR): 조선식 온돌방으로 정주칸+방의 형태.
- 캡방(WB): 한족식 구들인 캡(炕)³⁾이 있는 방.
- 방(R): 온돌, 캡 이외의 방.

3) 한족식 구들로서 방의 일부에 폭 1.8 m-2.7 m, 높이 80 cm 정도로 설치한다. 침대의 역할을 하는 온돌로 보면 될 것이다. 이는 방 전체에 구들을 놓는 조선족의 온돌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입식생활에 적합한 구들방식이다.

· 거실(L): 커팅(客廳)이라고 하며 접객, 가족간의 대화, TV시청 등을 한다.

· 변소(WC), 화장실(T): 위생실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변기만 있는 것을 변소,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욕조 등이 구비된 것을 화장실이라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 부엌(WK): 조선족형의 것으로서 정지(또는 정주)라고도 한다.

· 주방(K): 추팡(廚房)이라고 하며 구들(온돌, 캡)을 사용하지 않는 부엌.

③ 평면구성: 1980년대까지는 방2, 1990년대 이후에는 방3-4개형이 많다. F1, F7은 실내 위생실(변소)이 없는 가장 초기의 것이고, F2, F3, F8, F10은 위생실이 추가된 형으로 비록 변기만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평면의 기본요소를 갖추게 된 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족, 한족 모두 거실이 추가되어 면적이 커지고 평면구성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F17-F20은 LDK형으로 거실중심의 평면형이다. 또한 F14-F23은 위생실의 기능이 변소에서 화장실로 발전된 형태이다. 특히 F18, F20, F21, F22는 2개의 화장실이 있는 형이고, F19, F21, F23은 변기와 욕실을 분리한 형이다.

④ 난방방식: F1-F6(조선족평면)은 온돌, F7-F12(한족평면)는 캡, F13-F17은 라디에터, F18-F23은 온수바닥난방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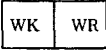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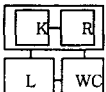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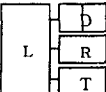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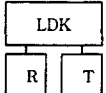
IV. 조선족과 한족 평면의 비교 분석

이제 이러한 평면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두 민족간의 평면구성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평면구성의 유형 분류

<표 4>는 평면구성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와 같이 평면구성 유형은 크게 4가지이며, 이중 P(A), P(B)형은 다시 조선족형P(A1), P(B1), 한족형P(A2), P(B2)형으로 구분하여 총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표에서 P(A), P(B)형은 구들난방(온돌, 캡)에 의한 것이며, P(C)는 라디에터, P(D)는 온수바닥난방에서 나타나는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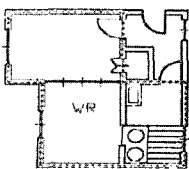
표 4. 평면유형

유형	각 실의 구성	평면구성의 특징	주된 난방방식		
			온돌/강	라디에터	온수바닥난방
P(A)	P(A1) 	· 정주칸중심 · 실내변소 없음	F1		
	P(A2) 	· 강·주방 분리 · 실내변소 없음	F7		
P(B)	P(B1) 	· P(A1)에 거실, 변소 추가	F2 F3 F4 F5 F6		
	P(B2) 	· P(A2)에 거실, 변소 추가	F8 F9 F10 F11 F12		
P(C)		· 거실, 위생실 기능확대 · 주방에 식사공간		F13 F14 F15 F16 F17	
P(D)		· 거실중심구성 (LDK, L+DK)			F18 F19 F20 F21 F22 F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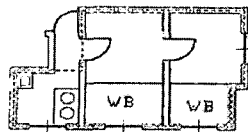
2. 조선족과 한족의 평면구성 비교 분석

1) P(A)형

이 형은 조선족, 한족 모두 가장 초보 단계의 것으로 방과 부엌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아직 실내변소도 없는 형이다. 난방은 구들식인데 조선족은 온돌, 한족은 강으로 한다. <그림 1>은 P(A)형으로서 P(A1)은 조선족형 F1평면, P(A2)는 한족형 F7평면의 예이다. 여기서 빗금친 부분은 구들난방이 되는 부분이다.



P(A1):



P(A2)

그림 1. P(A)형의 예

① P(A1)형

이 형의 핵심은 정주칸인데 이것은 난방 때문에 방과 부엌을 한 셋트화시킨 것이다. 방 전체에 구들을 놓는데 그 방식은 한반도의 것과 거의 같다. 정주칸에서 정지는 부스케(아궁이)와 연료(장작, 석탄 등) 저장공간, 부뚜막으로 되어있으며 부스케는 바닥 레벨을 약 70-80 cm 정도 낮추어 설치하므로서 불길이 구들을 거쳐 굴뚝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 부스케는 불을 났을 때 외에는 널판으로 덮어 방과 부뚜막, 부스케가 같은 높이가 되게 하여 전체를 한 공간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주칸과 인접한 방역시 셋트화되어 같은 구들로 난방을 한다. <그림 1> P(A1)의 예는 1962년 연길시 삼화가(參花街)에 지은 것으로 조사 당시 가족은 부부와 남학생 2명이었다. 취침시 부부는 정주칸, 아이들은 방을 사용한다. 식사, 손님접대는 대부분 정주칸에서 한다. 취사는 겨울에는 솥에 물을 때어 밥을 지으므로서 난방을 겸하고 여름에는 전기밥솥과 가스렌지 등을 사용한다.

② P(A2)형

이 형은 한족 집합주택의 초기 평면으로서 주방과 강방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난방은 주방 아궁이에 불을 때어 강의 구들을 덥히는 방식으로 한다. 강은 부엌과 인접해 있으나 P(A1)형과는 달리 독립된 실로 격리되어 있다. <그림 1>의 P(A2)를 중심으로 실의 이용 예를 보면, 부엌과 인접한 방은 부부가 사용하고 안쪽 방은 자녀가 사용한다. 식사는 부엌과 붙은 방에서 강에 걸터앉아 하고 손님이 올 때는 강 옆의 공간에 별도의 식탁을 차리기도 한다. 취사는 겨울에는 아궁이에 석탄을 때어 가마(솥)와 평가마(후라이팬의 기능)에서 조리를 하므로서 난방을 겸하고 여름에는 가스레인지, 전기 밥솥 등을 사용한다. 세면, 세탁 등은 부엌에서 한다.

또한 <표 5>는 P(A1)과 P(A2)를 비교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P(A1)과 P(A2)는 공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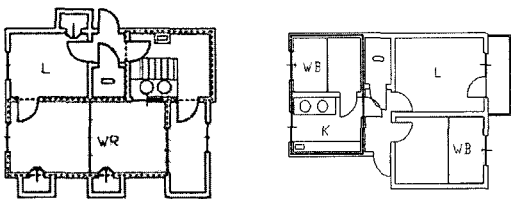
표 5. P(A)형: 조선족/한족 평면비교

	실구성의 특징	취사/식사 접객	실내공간 출입	실의 연결
조선족 P(A1)	부엌-정주칸 일체형	정주칸에서 좌식으로	신발 벗고	현관-정주칸, 현관-방
한족 P(A2)	주방과 방 분리	주방 또는 강에서 입식으로	신발 또는 슬리퍼사용	현관-강방

성이나 각 실의 기능이 크게 다른 평면형이다. 즉 조선족형은 정주칸, 방 전체를 온돌로 하여 좌식생활에 적합하게 한 형이고, 한족형은 칸에 난방을 하여 침대겸 의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부뚜막을 높여 아궁이 레벨을 바닥면과 동일하게 하므로서 입식생활에 적합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2) P(B)형

이 형은 P(A)형에 실내 변소, 거실이 추가된 형이다. 부엌-정주칸-방, 주방-강방의 셋트는 기본적으로 P(A)형과 같다. P(B)형에서 실내에 위생실(변소)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수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에 상·하수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형의 초기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서 1980년대 중반까지 건립되었다. 위생실과 아울러 거실이 추가되었는데 이 형에서의 거실은 구들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하나의 실로서 난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창고로 쓰거나 보조 난방기구를 이용한다. <그림 2>는 P(B)형의 예이다.



P(B1)형: P(B2)형

그림 2. P(B)형의 예

① P(B1)형

P(A1)형에서 위생실만 추가된 것이 <표 2>의 F2, F3이며, 위생실과 거실이 추가된 것이 F4, F5, F6이다. 이들 평면 역시 평면구성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주칸이다. P(B1)형의 예로서 F4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주칸과 방사이에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생활조사에서 조사대상 4세대중 3세대가 미서기문을 없애고 하나의 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돌방(WR)은 면적이 제일 클 뿐만아니라 식사, 단란, 접객, 취침의 제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현관옆 거실은 온돌이 설치되지 않아 예비실, 허드렛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P(A1)에서는 없던 발코니가 추가되어 부엌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유형에서의 변소는 용변기능만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고 세면, 세

탁 등은 정지에서 한다.

② P(B2)형

이 형은 한족 평면형 P(B1)형에 변소와 거실이 추가된 형이다. 이 형의 예로서 <표 2>, F11의 예를 살펴보면, 각 실의 연결은 현관-주방-강방(1)과 현관-강방(2), 거실의 방식이다. 난방은 강방(1)의 경우는 주방에서 불을 때어 가능하나 강방(2)의 경우는 칸 아래쪽에 간이 아궁이를 설치하여 칸을 덥힌다. 이 형 역시 P(B1)과 같이 거실은 구들난방이 되지 않으며, 변소는 최소한의 것이다. <표 6>은 두 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조선족은 정주칸, 한족은 강구조라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에 위생실과 거실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P(B)형: 조선족과 한족의 평면구성 비교

	실구성의 특징	취사/식사 접객	실내공간 출입	실의 연결
조선족 P(B1)	부엌-정주칸, 방 일체형	정주칸에서 좌식으로	신발 벗고	현관-부엌-정주칸, 현관-거실-방,
한족 P(B2)	주방과 방 분리	주방, 칸에서 입식으로, 접객은 거실에서	신발 또는 슬리퍼사용	현관-주방-강방, 현관-강방,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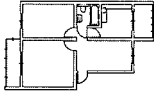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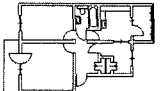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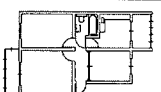
3) P(C)형

이 형은 난방이 구들방식에서 중앙집중식 라디에터로 바뀌면서 정주칸, 강 중심의 평면에서 벗어나 평면구성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형, 한족형이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공통의 평면형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방이 독립되었다. 온돌형이나 강형이 난방 때문에 정지, 주방과 방이 셋트화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라디에터형은 정지, 주방은 취사, 식사기능으로 독립되고 각 방들의 위치가 자유로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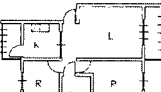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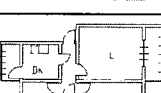
- 거실이 평면구성의 중심이 되었다. 라디에터로 내부 전체가 난방이 됨에 따라 온돌방 중심이던 평면에서 벗어나 거실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 형에서 조선족과 한족의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표 2> F14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내부공간 구성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조사대상은 총 12 세대(조선족6, 한족6)였다.

표 7 P(C)형: 조선족과 한족의 평면구성 비교

	평면 변경예	실구성의 특징	세대수	
			조선족	한족
V		개방된 그대로 거실로 사용	5	1
Va		입구 우측공간을 식사실로 개조하고 주방과 연결시킴		2
Vb		우측공간을 독립실로 하여 거실, 식사실로 사용	1	3

이와 유사한 현상은 F15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도 12세대를 조사하였는데 실의 변경 예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P(C)형: F15의 변경예

	평면 변경예	실구성의 특징	세대수	
			조선족	한족
Va		거실을 개방하여 LDK형으로 사용	6	2
Vb		거실을 독립된 실로 변경		4

이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조선족은 실의 개방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한족들은 실을 변경하여 독립된 식사실이나 독립된 거실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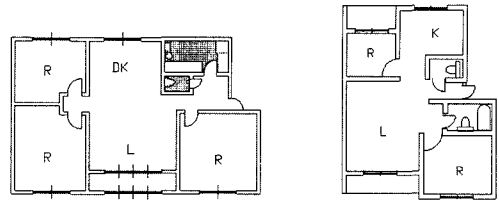
4) P(D)형

이 형은 중앙집중식 온수바다난방에 의한 것으로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공간구성을 나타낸다.

· 3bay LDK평면으로서 한국의 평면형과 유사한 공간구성(F18, F19, F20).

· L+DK 또는 LD+K형으로서 주방부분을 격리시킨 공간구성(F21, F22, F23).

<그림 3>은 F19와 F22의 예인데 이 두 종류의 평면형을 민족별로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F19

F22

그림 3. P(D)형의 예

이 두 평면형을 대상으로 각각 12세대(조선족6, 한족6)를 방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두 평면형 모두 별도의 변경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는 ‘바닥 전 부분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막지 않는다’, ‘평면구성상 막기가 용이하지 않다.’ 등으로 응답했다.

이 두 평면에 대한 입주자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19에 대해서>

- 이대로 넓고 환해서 좋다. (조선족6, 한족3)
- 주방이 흰히 보이는 것이 싫다.(한족3)

<F22에 대해서>

- 주방이 가리워져서 좋다.(조선족3, 한족5)
- 주방이 좁다. 전체적으로 내부가 탁 트여 넓게 보였으면 좋겠다.(조선족3, 한족1)

한편 F20, F21과 같은 큰 평수에 대해서는 조선족, 한족 모두 선호하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P(D)형의 경우, 조선족은 LDK형 같이 개방되고 확트인 공간을 선호하고, 한족은 주방이 거실이나 다른 실과 격리되어 독립실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다.

V. 평면형의 변천 및 민족간 특성의 요인

1. 평면형의 변천

<표 9>는 각 평면유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P(A)형은 1960년대 중반까지 나타나고 이어 P(B)형이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구들식(온돌, 강)이 이 시기까지 건축된 것

표 9 . 평면 유형의 변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P(A)	■			
P(B)		■		
P(C)			■	■
P(D)				■
건축관련법, 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 주택 도입 (1950년대) · 조선족/한족 각각 다른 평면형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주택에 구들식 금지 (1980년대 후반) · 중앙집중식 라디에터 난방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바닥난방방식 도입 · 한중수교(1992) 이후 한국 평면형 도입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집체,(직장)에서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상품화 추진.

로 조선족과 한족이 20여년간 전연 다른 평면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1980년대 초부터는 공통평면인 P(C)형이 공급되므로 해서 조선족들도 일부 입식화된 평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온수바닥난방이 보급되고 한국의 평면형이 전해지면서 조선족들은 좌식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과 한족의 평면형은 조선족에 적합한 온수바닥난방형과 한족의 입식생활에 적합한 라디에터형이 상당기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천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난방방식의 변화: 난방방식의 변화는 곧 평면구성의 변화와 직결되었다. P(A), P(B)형은 구들식으로 온돌, Kang 난방방식에 의한 평면형이고, P(C), P(D)형은 중앙집중식 라디에터나 온수바닥난방에 의한 평면형이다.

② 법적·제도적 변화: 집합주택에서 온돌, Kang의 사용금지, 세대별 옥외 창고설치 금지, 주택보급정책의 변화 등 제반 법적·제도적 변화는 평면형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980년대 후반 온돌, Kang 사용금지로 인해 P(A), P(B)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2. 민족간 평면구성 차이의 요인

P(A), P(B)형에서와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평면형이 보급된 것은 두 민족간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기인한다. 즉 조선족은 좌식생활, 한족은 입식생활을 선호하는 것이 평면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온돌이 방 전체를 난방하므로써 어디서나 신을 벗고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반면, Kang은 입식생활에 적합한 난방방식이다.

즉 의자와 침대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난방방식인 것이다. 온수바닥난방 보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한족들이 라디에터를 선호하는 것도 그 이유라 하겠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좌식과 입식생활

조선족은 현관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생활하는데 반해 한족들의 경우, F7과 같이 신을 신고 들어가거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한다. 라디에터는 거의 대부분 슬리퍼를 사용하고, 온수바닥난방의 경우는 양족 모두 신을 벗고 생활한다.

② 실의 독립과 개방

조선족은 개방된 내부공간을 선호하는데 반해 한족들은 실의 독립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P(A), P(B)형에서 조선족이 정주칸과 방을 일체화시키는 것에 반해 한족의 경우는 분리, 독립시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P(C)형에서와 같이 조선족이 거실을 개방시켜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한족들은 거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LDK평면형의 경우, 조선족은 크게 선호하는 반면 한족의 경우는 구획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③ 취사 및 식사

조선족은 취사공간을 노출시키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반면 한족들은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조사시 이들은 주방을 보는 것을 몹시 꺼려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취사형태와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즉 한족들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음식이 많아서 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많이 마련이다. 따라서 기름이 튀거나 냄새

가 다른 공간에 퍼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능하면 주방은 별도로 두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과 한족이 공존하고 있지만 생활양식상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집합주택 평면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본다. 초기에는 전혀 다른 평면형이었던 것이 공동의 평면형이 나오면서 유사하게 되었다가 다시 한국의 평면형과 온수바닥페널이 보급되면서 조선족이 선호하는 다양한 평면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연변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과 한족 집합주택의 평면구성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연구는 먼저 두 민족간의 평면구성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이 시간축을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현지의 평면들을 분석한 결과 공간구성유형은 크게 4개였으며, 좀 더 세분하면 6개의 형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을 민족별로 보면, 조선족형이 2개, 한족형이 2개, 공통형이 2개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면구성유형에서 조선족형, 한족형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4개형은 모두 구들난방방식(온돌, 캡)에서 나타나는 형으로서 집합주택 도입 초기(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평면에서 볼 수 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두 민족 모두 당시의 민가 평면형을 단순화시켜 도입, 발전시킨 것으로서 조선족은 정주칸 중심의 좌식 평면형, 한족은 캡 중심의 입식 평면형이다.

· 구들난방이므로 조선족의 경우, 방과 정지를 정주칸으로 셋트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평면구성의 핵심이 된다. 한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기는 하나 일부 캡은 보조 아궁이가 있어서 평면구성이 좀 더 자유롭다.

2) 공통평면형은 1980년대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시기의 변화, 특히 난방방식, 법과 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난방이 구들식에서 중앙집중식 라디에터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조선족, 한족평면의 특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더 이상 방과 정지(주방)를 셋트화하여 고정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 1980년대 말 온돌, 캡구조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면서부터 공통평면이 보편화되었다.

· 1990년대부터 온수바닥난방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공통평면형이 나타나고 있다.

3) 두 민족간 평면구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그 근본에는 생활상의 차이, 주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족은 개방형, 한족은 실의 독립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온수바닥난방 LDK 평면형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선족은 매우 선호도가 높은 반면, 한족은 온수바닥, 라디에터형 두 가지 형태를 수용하되 주방, 거실 등을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하는 평면형을 선호하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진우(1993),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민가건축 초보탐구, 연변대학논문.
2. 김영모(편)(1992),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3. 리화선(1989), 조선건축사(1)(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4. 민족출판사(1989), 봉화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3), 북경.
5. 박경휘(1987), 조선족민속연구, 룡녕민속출판사, 瀋陽.
6. 심혜숙(1993), 중국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연길.
7. 연변조선족자치주개발 집필소조(1984),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연길:연변인민출판사.
8. 연변조선족자치주통계국(1998), 연변통계년감1998, 중국: 중국통계출판사.
9.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장재춘(1995), 울산대학교 출판부.
10. 이채진(1988), 中國안의 朝鮮族, 청계연구소, 서울.
11. 조선족역사학적편집위원회(1993), 풍랑(중국조선민족발자 위총서7), 중국:민족출판사.
12. 중국조선족청년학회(1992),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3.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